8) 전례의 활성화를 위한 성음악 투자

팬데믹이라는 위기 속에서 전례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전례를 더욱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성음악이 쇄신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재정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인식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어느 기업이나 단체가 어느 사업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어느 분야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는 지를 파악하면 된다. 그렇다면 일선 본당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투자하는 분야, 즉 재정을 가장 많이 투입하고 있는 분야는 어디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평신도 그리스도인」에서 본당 사목구는 “성찬의 공동체”이며 “성찬은 본당 형성의 살아 있는 원천”(26항)이라고 칭하신바 있다. 즉 이러한 신학적 명제는 한마디로 사제가 머무르는 본당의 존재는 모든 것에 앞어서 성찬례의 거행, 곧 미사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앞서 언급한 훈령 「본당 공동체의 사목적 회심」에서는 “사람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그저 반복적인 활동은 무의미한 시도로 남을뿐”이라고 지적하면서 “만약 본당 사목구가 복음화의 영적 역동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자기 중심적이고 화석화될 위험성에 놓이게 된다”(17항)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형식화된 전례에서 탈피하여 활성화된 전례, 곧 다양한 수단을 통해 미사 전례에 대한 교우들의 “의식적이고 능동적이고 완전한 참여”(「전례헌장」 14항)를 이끌어 내기 위해 본당에서 사용하는 재정투자의 일차적인 대상은 당연히 미사 전례이어야 하지 않을까?

성당의 음향이나 조명을 개선하는 일이나 아름다운 성화나 성상으로 성전을 거룩하게 꾸미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지만 미사 전례에서 성가를 통한 찬양이 더욱 아름답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 또한 못지 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자격을 갖춘 성음악 직무자에게 소정의 사례를 지급하는 것은 그 수고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교우들로 하여금 미사 중에 기도하도록 더욱 잘 인도하기 위한 당연한 “투자”인 것이다. 일찌기 전례성성에서는 「성음악지침」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오르가니스트나 성가대원과 그 지휘자, 악기 연주자 … 들은 무급으로 봉사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리스도교의 정의와 애덕 실천은 이들에게 법조항과 지역에서 인정된 규정에 따라 적합한 임금을 주도록 요구한다.”(101항) 개신교에서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음악 전문가를 예배에 활용하려 한다거나 심지어 일부 대형 교회에서는 오케스트라까지 예배에 활용하려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로 인해 실력있는 가톨릭 음악가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개신교로 개종하는 일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하는가? 필자는 약 20년동안 성음악 교육에 종사해 오면서 평일미사 반주자등을 포함한 많은 봉사자들을 만나 보았지만 본당에서 소정의 액수라도 지원받았다는 분들은 극히 드물었다. 물론 음대 교수와 같이 따로 직업을 가진 전문 음악가 혹은 아마추어와 음악활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문 음악인을 구별하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이며 노동법과의 관계도 세밀하게 살필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전문 음악인에게 독서 봉사자와 같은 수준의 봉사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독서 봉사자가 읽는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할 수 있는 한 전례의 활성화와 선교를 위해 더 좋은 성음악 직무자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